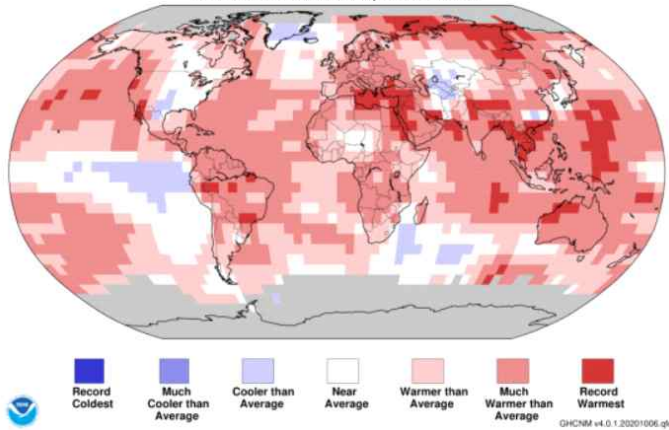


금년 9월, 지구 전체적으로 기록상 가장 뜨거웠다

Land & Ocean Temperature Percentiles Sep 2020
NOAA's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 Source: NOAA GlobalTemp v5.0.0-20201007

(10.15자 WMO 기사)

번역 : APCC 전문위원 김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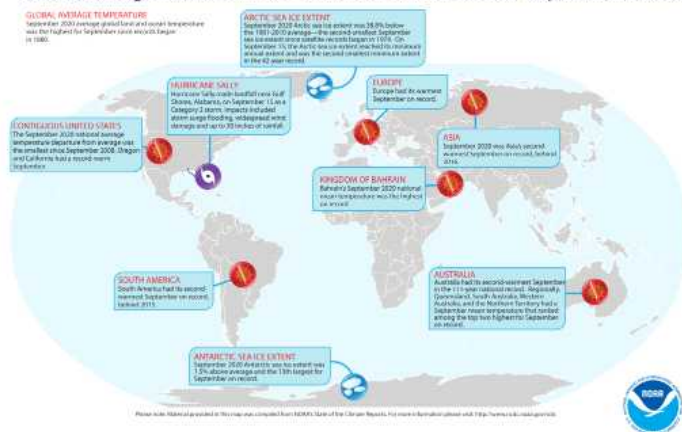
금년 9월은 지구 전체적으로 기록상 가장 뜨거웠다. 미국 해양 대기청(NOAA)에 따르면, 2020년 첫 9개월간의 기록도 따듯한 순위 2위였다(1위는 2016년).

9월만 놓고 봤을 때 기록상 뜨거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2005년 이후에 모두 나타났다. 특히 상위 7위까지가 지난 7년(2014-2020)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금년 9월에 기록된 남반구 지표면 및 해수면 온도는 평균에서 역대 가장 크게 벗어났다. 한편 북반구의 9월은 기록상 세 번째로 뜨거웠다. 북극 해빙면적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으며, 남극 해빙의 경우는 평균 이상이었다.

이달 초,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도 금년 9월이 기록상 가장 따듯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Selected Significant Climate Anomalies and Events: September 2020



최신 데이터만 봐도 WMO 주관 하에 최근 작성된 'United in Science' 보고서의 주요 결론인 기후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기록적인 수준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배출량은 봉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점차 전염병 이전 수준을 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후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 박사는 ‘United in Science’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202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5년이다. 우리 삶의 많은 측면이 2020년에 붕괴 되었지만 기후변화는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이대로 간다면 파리에서 합의했던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미만 혹은 1.5°C 로 유지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NOAA에 따르면 북반구의 금년 1~9월은 육지 및 해수면 온도가 전지구 기록 시작년도인 1880년 이래 가장 따뜻한 기간으로 2016년과 동률을 이뤘으며, 남반구의 경우는 기록상 네 번째로 따뜻한 기간을 보냈다.

유럽, 아시아, 멕시코만의 1~9월도 역대 가장 따뜻한 기간이었다. 북부 아시아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적어도 3.0°C 넘게 높았다.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1~9월 기온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평균보다 서늘한 상태를 보인 곳은 알래스카, 캐나다 서부, 인도 북부, 남반구 일부 해역으로 국한되었다.